

정시 확대에도 수시 모집 중요성 유지

2021학년도 대입 주요계획 발표

학종 10% 이상 늘려 주요대 지원 쏠림 심화 예상 '공론화 무색'... 일부 지방대 학생층원 우려도 제기

2021학년도 대학입시 때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기대보다 적게 늘면서 수시모집 중요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 학교가 많지만,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함께 늘린 탓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공론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은 2021학년도 입시 때 수시모집으로 26만7천374명, 정시모집으로 8만7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모집 비율은 23.0%로 2020학년도 22.7%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영덕 대학정책개발연구소장은 "20

21학년도 대입은 2020학년도와 기본적인 틀이 같다"면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조금 늘었지만, 주요대가 수시모집,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여전히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시를 우선하되 정시도 염두에 두며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해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이월 인원'을 고려하면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논술·특기자전형 선발 인원 비율은 '5:3:2'가 될 것"이라면서 "고2 여름방학 전에 학생부와 수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줄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입시지형을 좌

우하는 주요 대학들이 2021학년도부터 수능전형 비중을 30%에 맞추기를 기대했으나 아쉬운 결과다.

주요 대학 상당수는 2021학년도에 학종도 늘릴 계획이다. 학종이 수능에 비해 신뢰도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여론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고교 2학년생 중 대학진학이 우선목표인 일반고·특목고·자율고에 다니는 학생은 3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학년도 대입 때는 수험생 수가 4년제 대학 모집 인원(34만7천447명)과 '같거나 근소하게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일부 지방대는 수시모집으로 학생을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적어 뽑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것"이라면서 "입시현장에는 벌써 '지방대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수시모집 때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퍼져있다"고 전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함께 공개된 20개 대학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현황과 관련해 입시전문가들은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미적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개 대학의 2020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현황을 보면 고려대와 연세대 등 8개 교만 자연계열 수험생에게 수학영역 선택과목 중 '기하 또는 미적분'을 치르라고 지정하고 나머지 12개교는 따로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수능전형 비중이 30% 이상이 아닌 학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지만,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자격에 교과전형 30% 이상인 학교는 예외로 한 것은 학생 층원난을 겪는 대학을 배려하는 취지였다"면서 "지난해 공론화의 취지를 대학에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모든 주요 대학이 2022학년도에는 수능전형을 30%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철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해질: 19:18

▶달돋이: 03:58/달질: 15:43

▶날씨: 맑음

▶최저/최고/온: 11/23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귀가 후 깨끗이 씻으세요
- 빨래 70
대체로 잘 말라요
- 세차 80
내부 세차도 함께
- 운동 60
준바운동 철저히 하세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20-20	목포	12:08	05:14
목포	20-20	목포	---	17:45
순천	20-20	여수	07:18	00:49
여수	20-20	여수	19:28	13:22

서해 남부 (동항/파고)

오전 알바다 △ 서북-서/0.5-1.0m
면바다 △ 서북-서/0.5-1.5m

오후 알바다 △ 서북-서/0.5-1.5m
면바다 △ 서북-서/1.0-2.0m

남해 서부 (동항/파고)

오전 알바다 △ 서북-서/0.5-1.0m
면바다 △ 북서-북/1.0-1.5m

오후 알바다 △ 서북-서/0.5-1.5m
면바다 △ 북서-북/1.0-1.5m

주간날씨

5월	2/목	(10/23)	(11/23)	(12/24)	(9/23)	(11/25)	(13/20)
3/금	(11/25)	(11/24)	(13/23)	(9/24)	(12/26)	(15/23)	(15/23)
4/토	(12/26)	(11/24)	(13/25)	(10/25)	(12/26)	(15/22)	(15/22)

▶날씨안내 : 국민없이131



속타는 양봉농민 30일 오후 광주북구 금곡동에서 북구청 관계자들과 양봉 농민들이 낭충봉아부패병이 옮은 벌통을 소각하고 있다. /김예리기자

5·18 39주년 기념행사 전국 곳곳서 열려

서울·부산·강원·충남 등 지역별 협의회와 공동 추진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5·18기념재단은 지역별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광역협의회'와 '5·18정신계승 공동추진사업'에 선정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서울, 부산, 강원(춘천, 원주), 대구, 전북, 대전·충남 등 5·18광역협의회와 경기도(성남, 수원, 안산, 안양, 군포, 의왕), 충북지역 5월 단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

행한다.

광주에서는 광주·전남작가회의 주관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문학예술작품으로 읽는 5·18정신' 시상식과 전시회가 열린다. 2일에는 광주 서석고등학교 제5회 동창회에서 '1980년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생 5·18체험담 책자 출판' 기념회가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및 영화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5·18서울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서울광장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에서는 4일부터 31일까지 성

남, 수원, 안산 등 각 지역에서 5·18기념사업과 토크콘서트, 시민캠페인 등이 개최된다.

강원도에서는 5월 한 달간 원주시 문화의 거리에서 '마을마다 가슴마다 오월!' 5·18기념식 및 문화제가 진행되고, 13일부터 19일까지는 춘천시청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춘천기념행사가 실시된다.

이밖에도 대전·충남·경북 안동·경남 창원·부산 각 지역에서는 5월 한 달간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5·18정신계승 공동추진사업'을 공모해 전국 21개 사업을 선정해 바 있다. /최환준기자

중외 문화예술벨트 활성화 북구 등 6개기관 업무협약

광주 북구는 3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의 주요 문화예술시설이 집적돼 있는 중외공원을 광주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은 ▲광주시 북구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재)광주비엔날레 등 총 6개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 된다.

협약서에는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내 행사 등 주민참여 방안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지원 ▲지역주민 공연 전시 기회 제공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6개 협약기관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관 거시기홀에서 전문 작가가 아닌 주민이 참여해 그림, 공예품, 인테리어 소품 등 375점을 전시하는 '주민참여 특별기획전 주민 솜씨자랑'을 열기로 했다.

7월 3일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무료로 대관해 '북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조성에 따른 주민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구는 광주시가 2023년까지 사업비 총 190억원을 투입해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의 문화예술기관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중외공원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시각미디어문화관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환준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혁신도시 임직원 고교 입학 특혜 폐지"를

교육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촉구 진정

교육 시민단체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다며 관련 정책 폐지를 요구했다.

30일 전남도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의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또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과 정원의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 봉황고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조건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 대해 일방적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지방의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특혜를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다만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부터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전남 농어촌학생 통학지원 에듀택시 도입

도교육청...전국 최초로 시행

전남도교육청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에듀택시' 제도를 도입한다.

에듀택시 사업은 민선3기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농어촌 교육 활성화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 거주 초·중학생 중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통학버스(에듀버스 포함) 승차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회사와 계약을 통해 택시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통학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여수, 곡성 등 7개 시·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하고, 5월부터 운영해 그 성과 등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 민선 운영에는 3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79대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7개 시·군 지역, 초·중 42개교 191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및 관련자에 대한 안전지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 학생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학교생활 집중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기념홀 문 연다

5·18 시민군의 대변인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기념홀과 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김남주시인 기념홀이 잇따라 문을 연다.

전남대학교는 2일 오전 10시30분 사회과학대학 본관 1층에서 '윤상원 열사 기념홀' 개관식을 가진다.

기념홀은 '윤상원의 방'과 '윤상원 길'로 구성됐다.

윤상원 방 외관은 윤 열사가 활동한 들불야학의 장소였던 당시 광천동 성당 교리실의 붉은 벽돌건물에 착안해 형상화하고, 내부에는 들불야학 활동상과 그의 어록, 박기순 열사와의 영혼결혼식에 쓰였던 '님을 위한 행진

전남대 2, 3일 잇따라 개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 김남주 기념홀도 함께 조성

곡' 가사, 윤상원 열사의 출생부터 산화하기까지의 삶의 기록을 연보형태로 사진과 함께 게시돼 있다. <사진> 윤상원 길은 그의 평탄치 않은 삶과 장렬한 산화로 민주화와 역사의 빛이 된 인생 여정을 물결문양의 빛으로 형상화하면서, 연설문과 일기의 일부를 5·18 사진 속에 담아 세상을 향한 파스 한 손길과 실천의 발자취를 자연스럽

시 '자유', '조국은 하나다', 5·18관련 시 '학살' 등과 서정시를 벽에 새겨 넣고, 시집과 산문집, 번역집 등 25권의 저서를 전시한다.

특히 김 시인이 감옥에서 화장지에 쓴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등 육필원고 6·7편과 편지글 5편 등이 원본으로 전시된다. 또 시인의 연보를 영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작성해 게시했다.

또 시인의 육성 시 오디오, 이이남의 미디어 아트, 안지환의 노래, 각종 영상과 관련된 인터뷰, 전자방명록 등이 함께 설치돼, 교육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종민기자

기념홀은 2, 3일 잇따라 개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 김남주 기념홀도 함께 조성

곡' 가사, 윤상원 열사의 출생부터 산화하기까지의 삶의 기록을 연보형태로 사진과 함께 게시돼 있다. <사진> 윤상원 길은 그의 평탄치 않은 삶과 장렬한 산화로 민주화와 역사의 빛이 된 인생 여정을 물결문양의 빛으로 형상화하면서, 연설문과 일기의 일부를 5·18 사진 속에 담아 세상을 향한 파스 한 손길과 실천의 발자취를 자연스럽